

작은 책의 이야기 치료

이 현 경 교수
(Ph. D., 백석대학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야기 치료의 전제와 실재를 다루고 있다. 두 책 비유 중 작은 책은 성서를 의미한다. 이야기 치료는 기독교의 가치관이 갖고 있는 성서적 문화와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담화는 이야기의 내용, 이야기의 행위와 매체에 기록된 틀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 은유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에 따라 살며 이야기는 인간의 삶을 형성하며 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인간은 해석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을 해석한다. 인간은 인간의 경험에 대해 맥락이나 이해 가능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해 가능한 틀을 구성해 주는 것이 “이야기”이다.1) 성서의 이야기는 움직여가는 “이동”의 이야기이다. 성서의 이야기는 사건들과 주제, 시간의 경과 및 플롯에 따라 전개되며 인간 삶의 정체성은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키는 이야기 플롯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를 성서적 시점에서 조명하면 성서적이며 대안적인 플롯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이야기 치료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중심단어 : 이야기은유, 성서, 이동의 이야기, 대안적인 플롯, 정체성

I. 여는 글

두 책의 비유 중 “작은 책”은 성서이다. 기독교세계에서의 이야기 치료는 기독교 가치관, 문화 및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야기 치료는 인간의 인간 삶의 본질을 “이야기”라고 보며 이야기는 인간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인간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많은 경우 “자신에 관한 이야기”

(self-narrative) 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며 성서인 작은 책의 이야기를 따라 이동된다. 이 논문은 이야기 치료를 위한 전제들과 논의 외이야기 치료 실재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II. 펴는 글

1. 이야기 위력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옛적에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족, 그리고 민족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이야기로부터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죽음과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 “노예”라는 지배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 되었지만 그들을 보호해주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대안적인 이야기 (alternative story) 안에서 지배적인 이야기를 해체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들은 담화가 아닌 “계약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재구성 시키며 흥얼거리는 영가를 통하여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달합니다. 민족과 가족을 통해 그 자손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영가 속의 이야기는 계약의 히브리 민족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힘을 구축하며 그들의 삶을 지탱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고난과 죽음의 지배적인 이야기를 외현화 하고 선호하는 이야기 (preferred story)로 만들어가면서 또 다른 삶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가에 담겨져 있었으나 지금은 역사 안에서 다른 세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²⁾

이야기의 세 요소는 사건과 인물, 배경이며 배경의 세 요소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대적 상황설정이다.³⁾ 인간의 삶은 이야기와 같이 시간과 공간, 사회적 맥락 안에서 영위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 시대적 배경을 가진다.

히브리 민족에게 지배적인 담화들이 오랫동안 남아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텍스트(text)의 플롯이 고정되며 담화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이 겪고 있었던 고정된 민족의 담화를 신과의 관계에서 조명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작은 책의 이야기는 구약의 노예들이 고정되었던 자신들의 담화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혹은 모세와 대화에서 시작한 “구원”이라는 예외적 관점으로 이동하며 전개되어진다.

문학에서의 “자기서사”란 인간 안에 작용하는 문학으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서사를 의미하며 “작품서사”란 인간 밖에서 움직이는 문학으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서사를 의미한다. 서사는 어떤 사물이나 인물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포함되며 플롯(plot)에 의하여 사건과 사건이 인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서사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⁴⁾ “서사”란 개인적인 것 보다 관계중심의 서술이며 이야기를 수용한다는 것은 상호작용 안에서 타인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야기 은유(narrative metaphor)는 인간이 삶에 대해 갖는 이야기에 따라 살며, 이들 이야기가 실제로 인간의 삶을 포용한다⁵⁾고 제안된다. 작은 책 이야기는 구성(plot), 시간(time), 주제(theme)와 사건(events)으로 구성되었다. 이야기 플롯은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야기에 채택되어진 정체성 사건들은 대안적 플롯에 의해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야기에 관여하는 텍스트 플롯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조망(landscape of action)으로부터 인간의 정체성(landscape of identity)이 달라진다. “하나님께서서는 10년 후에 선생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 되었다고 이야기 하실 까요?” 상상력을 동원한 질문들은 잠시 내담자를 미래로 보내어 기독교 세계에서 삶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플롯 안에서 현재로 다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언어로 표현하게 한다. 또한 인간의 주목받지 못하거나 인식되지 못하여 작고 간과되기 쉬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빌 1:6; 요1 4:12) 으로부터 상담자와의 “언어게임”이 시작되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게 된다.

2. 블랙홀 (Black Hall)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 버리는 인간의 “투사”에 대해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전이”와 “저항”을 끌어올리고 해석과 인간의 정신을 재구조화 하는 지난세기 “정신분석” 이론과 다르게 SFPC 의 Charles Collar는 자신의 책을 통하여 정신치료 혹은 정신 건강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내담자 들이 정신적 공허함과 함께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경험⁶⁾에 대해 보고한다. “블랙홀”이란 용어는 천문학 용어이며 천문학에서 중력이 큰 지역으로 충돌한 별을 의미하며 심지어 빛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단혀 지는 세계를 의미한다.

“블랙홀”은 가능한 부분이 아닌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강화로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신 병리학과 정신건강 세계의 “결함 언어”를 “블랙홀”로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미운 부인의 분노가 주위로 이동하게 되면서 남편을 비난하게 되는 감정의 “투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식 (insight)에 대한 관념적 언어구성과 문제중심의 질문은 정형화 된 플롯에 의해 블랙홀로 작용될 수 있다.

극단적 기독교 인지주의 견해를 “블랙홀”로 보며 “결함언어”를 지적하는 양유성은 내담자의 핵심신념을 직면시키고 반박하기 위해 상담자 자신의 절대적인 진리인 양 믿고 있는 거짓되고 환상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시키는 것 보다는 이상승배의 형태를 띠고 이상승배적인 존재에게 강하게 묶여있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성서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언약관계로 이끌면서 어떤 대안적인 이야기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족치료 “반영 팀”은 과거의 20세기 치료자들이 치료자끼리 공유된 신념으로 내담자의 “언어”가 지닌 의미를 조작한다고 보았다. 이 이론은 치료자가 내담자의 피상적인 이야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분석하며 교육하는 의도는 “내담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성을 차별적이며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주의 가족치료 (feminist

family therapy) 또는 여성주의 목회상담은 내담자의 행동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명백히 해야 하는 이유로 '기독교 철학' 보다는 "여성주의 가치관"에 기초를 두며 "메타 모델"을 강조하게 된다. 국가와 사법 기관의 명령에 의해 행해지는 상담 (mandated counseling) 구성은 내담자 자신의 선택과 변화에 대한 배려보다는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적인 메시지가 "블랙홀" 문제로 논의 되어질 수 있다.

성경의 메시지에 경청해야 한다는 Edward Wimberly는 성경의 사용에 대해 상담자의 주도적이며 지시적인 면의 역할이 강조되기 보다는 구원을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어두운 해석에 매여 있는 내담자가 선호하며 공감하며 희망적인 성경구절에 주목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⁸⁾

3. 이동하는 이야기

작은 책의 이야기의 구조는 움직여가는 "이동" (moving) 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한 장소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예측하며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며 희망의 과정을 진행시킨다. 모세, 요셉, 욥, 마가 등의 성서의 인물들은 기독교 세계에서 이야기를 생산하는 "주체"이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의해 만들어져가는 "객체"가 되어 진다.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실수 이야기든, 유다의 실패 이야기이든,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 이든, 에스더의 사랑의 이야기 이든, 사마리아 여인의 은유 이야기이든 작은 책의 텍스트 플롯이 교차되는 순간 내담자 자신의 삶은 작은 책 안에서 대안적인 이야기로 이동된다. 작은 책인 성서를 통해서 가족은 가족의 이야기를 수정하며 보완하고 자신의 세계 안에서 기독교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기독교적 목표로 전진해 나간다.

나단선지자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위를 계승하도록 권면하며 중재하는 과정 (사무엘 하) 에서 현존하는 왕을 존중하며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문제가 되며 고정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의 플롯"을 바꿈으로서 지혜롭게 대처한다. 나단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 플롯을 담아내고 있다. 로마서 8

장의 주제는 “올법 이야기”의 닫혀진 플롯이 교차적으로 바뀌어 지면서 정체성 이야기로 이동된다. 유대주의 (Judaism)적 고정 관념에서 은혜의 주제로 바뀌고 족고 역사적으로 “할례”와 “무 할례”의 구별이 없어지고 신이 주는 다른 가능성과 선호하는 이야기 플롯을 통하여 재조명 된다.

이야기 치료의 또 다른 전제는 내담자 자신의 희망, 힘의 한계, 가능성 등을 지각하는 방식은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 재구성 인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시각과 관계가 있다. 즉 중요한 타인(i.e. God)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이전에 없었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4. 기독교상담과 일반상담 이야기

치료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와 “어떤 전제의 상담을 사용 하는가”에 따라 상담이 달라지며 대전제는 상담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종착점이다. 영국 모듈린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 S. Lewis의 신학과 심리학 (과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빛줄기의 근원 (신학)과 빛에 비추어진 미립자 (심리학)로서 두 상담의 연결점을 Philip Yancey의 책, “Disappointment with God”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상담의 5가지 견해를 나열해 본다.

1) 부인 (the word, not worldly wisdom view)

미국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966)”의 주요 논지는 심리학을 가치 판단적 평가를 하는 것이었다. “심리학”에 대하여 가치판단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 미국 성경적 상담학 학회 잡지들은 이관직의 글에서 평가되어 진다.⁹⁾ “기독교 심리학은 다윈의 진화론 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과 “특정 심리이론”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에 반대 한다 (Adams, Powilson, Bobgan, Ganz, Vitz)고 보는 것이다. 심리학은 거짓으로 상담하며 (Bobgan, Owen), 건전한 성경해석과 모순되고(Owen, Adams), 심리학은 위험한 촉매이며 이단요소를 가지며 (옥성호, Powilson), 심리학은 조직신학과 모순되며

(Powilson, Owen, Kilpatrick.), “실천신학이 기독교 심리학보다 인간심리를 잘 이해 한다”(Powilson, Kilpatrick, Adams), “심리학을 여러 면 에서 포위 해서 공격하고” (Kilpatrick, Vitz), “심리학 이론의 내부 비평을 이용하여 역 으로 비평하라” (Adams, Bobgan) 등이다.

(1) 심리학, 죄악된 인격체?

MBA 전공자인 옥성호 (2007) 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에서 “교회에 파고드는 “기독교 심리학”에 대해 다이윈의 진화론 보다 “무서운 적”으로 언급하면서 “심리학이 성경적으로 옷을 차려입고 웃는 얼굴로 천사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¹⁰⁾으로 표현하고 있다. “적”이라는 용어와 언급된 “공격하라” 등의 용어들의 공통점은 심리학을 마치 어떠한 “인격”을 가진 대상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리학은 중립적인 것으로 가치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시대이건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상담가의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을 가지고 라벨링 하는 상담자에 따라 심리학의 의미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그자체가 사악하고 버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에 의해 사용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관직은 하나님의 지혜와 일반은총으로서 주어지는 상식이 여러 학문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며 연결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과 오만”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연결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잘 연결하면 지혜와 통찰이 발생하는데 분명하게 보이는 연결점들을 굳이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¹¹⁾고 덧붙여 언급하며 21세기 뿐 아니라 이미 존재 해왔던 성경 학자들의 문제를 제시한다.

전문 의학이나 경제학, 심리학, 생물학을 연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가 있다. Edgington의 언급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과 행동의 과정을 창조하셨고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반영은 심리학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한다. 비기독교인 William Glasser가 창시한 현실치료(reality therapy) 는 “인

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선택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Glasser의 선택이론(choice theory)은 기독교계의 “대전제”와 관계없는 일반 심리이론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의지능력과 선택적인 능력”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 이론은 성서적 인간론 연구의 동기를 부여해 준다. 또한 Freud의 방어기제는 성서적 “죄”의 이념을 언급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론은 아니지만 “인간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성서적 정보들을 제공해준다.

Wimberly는 목회상담에서 성경이 사용되는 이야기에 대하여 세 가지(윤리 교훈적 사용, 성경의 역동적 사용, 말씀의 현시능력사용)로 구분¹²⁾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그는 “윤리 교훈적인 성경사용”을 하는 Jay E. Adams를 소개한다. Adams와 같이 옥성호는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상담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주요 논지로 한다.

“오직 성경”의 주제에 대한 이관직의 설명과 지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러한 강조는 종교개혁시대에 나온 이 용어의 뜻을 오해하며 “성경에 강박적으로 집착됨”으로서 구체적으로 상담상황, 성경과 맥락, 심리학적 이해와 통찰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루어 내지 못한다. 이 주장을 하는 신학자 혹은 상담가는 구체적으로 성경을 상담과정에서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균형 있는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한다. 둘째, “성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와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반계시적인 내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성경의 충족성(Biblical sufficiency)을 오해한다.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며 성경에 모든 인간의 삶과 문제에 대하여 모든 충분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다. “성경의 충족성”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에 이미 충분하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나왔으며 특별계시의 종결성을 말해주는 교리이다.

작은 책 안에 인간의 삶과 인생에 대해 모든 제안과 가이드라인을 주셨고 충분한 답이 있다(벧후 1:3). 그러나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정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sufficient but not exhaustive). Edgington은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세부적인 연구 분야인 심리학, 사회학, 생물학, 과학적 모든 학문들을 인간이 탐구하며 파헤치고 정복하는 “창세기”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을 상담자의 역할로¹³⁾ 언급한다. Edgington은 또한 상담에 있어 “성서적 방법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것은 우연이든 아니든 신학 안에 심리학과 일치되어 겹쳐지는 있는 부분이 있으며 신학 안에 심리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옥성호 및 “성경만으로 상담을 해야 함”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신학의 성서적 해석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본질적 완전성”에 의한 관념 때문에 “새것”에 대한 의미를 오해한다. 이 관직은 고린도후서 15장의 해석이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의미를 놓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계속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원을 받은 많은 크리스찬이 우울증을 앓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여전히 심리역동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니”라는 역동성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대망하여 점차적으로 변화해 갈 때 자신의 옛 모습을 드러내며 고통하며 가족관계에서 병리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¹⁴⁾ 또한 옥성호와 동료들은 정태기, 시몬스와 같은 통합신학자들이 함부로 성서를 심리학 이론에 맞추려고 (adaptation) 하며 그들이 사용한 용어를 지적하며 비판한다. 여기에 대한 개혁신학의 견해는 예수님의 비유(씨뿌리기 비유)는 명시적인 해석으로서 성경의 권위 자체인 신적권위가 부여된 해석인 반면, 통합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은 개연성과 가능성을 내포하는 인간의 해석인데 보편적으로 그러한 해석과 용어적용은 창의적으로 가능한 유연성이 내포되고 있음을 덧붙여 설명한다.

개연성과 가능성을 내포하는 해석에 대해 “성경만으로 상담”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의 비판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학문의 개입을 신학 용어 혹은 신학적 주제로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생물의학, 생화학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간과 되어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의 지극히 작은 영역으로서 심리학의 일부를 차지하는 Freud, Rogers, 행동주의 심리학을 모든 심리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소의 문제들이 왜곡되어 질 수 있다.¹⁵⁾ 예

를 들어 어떤 내담자의 강박적 행동의 문제를 보는 시점은 Freud의 발달단계에서의 고착이나 퇴행, 또는 초자아적 심리적 문제로 간주되기 보다는 기저핵의 문제, 혹은 전두엽부분의 문제로 간주되며 실제로 검사에서 나타나는 세레토닌의 결핍에 의한 원인으로 밝혀지는 현대 병리학과 문화적 다양한 관점이 원인으로 이론화 된다.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내담자 맥락과 평가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만으로 끝나는 “위로 부터의 접근 방법”은 비기독교인들과 관계에서 실제로 권면하며 성서를 가르치고 직면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다. 무지한 기독교 환원주의가 아니며 신학적 이론과 철학에 의해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오직 성경으로 하는 상담”을 전제로 하는 신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유대주의적이며 자기 도취적이며 병적 나르시즘적인 면이 부각되어질 수도 있는 조심스런 영역이 되어질 수 있다. 10월 13일 방영된 SBS TV 방송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욕구, 비기독교인의 맥락, 또한 공동의 영역을 방해하는 기독교 문제를 제시하며 윤리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관직은 “오직 성경적만으로 상담”을 강조하는 상담은 내담자의 이슈나 필요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연결시킬 수 있으나 문제점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성경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통합 (the two book view)

심리학과 신학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심리학과 기독교상담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견해는 미국 AAPC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기독교상담자들이 가지는 보편적 관점이다. “두 책의 견해”는 심리학과 신학의 “혼합”이 아니라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결합과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독교세계의 상담과 일반상담 두 가지 상담의 전제가 다른데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방법을 통해서 나온 각각의 발견된 진리들을 서로간의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서로 합체하여 하나로 아름답게 결합시키는 방법¹⁶⁾이다. 이러한 관점은 심리학은 신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유용성이 있고 신학의 진리가 모두 유용하다고 본다.

박종수는 심리학과 성경해석학 또는 신학의 무분별한 통합은 양자의 유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¹⁷⁾고 하였고 Edgington 은 기독교상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성경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만일 상담사가 두 이론 중 어떤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양가감정에 의하여 상담을 일관성 있게 다루어 내지 못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바람직한 이론들의 통합이 만일 한쪽에서 균형을 놓게 되면 다른 쪽의 지향적 가능성 때문에 간혹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같이 생각하는 오류를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3) 독립견해 (accept both, Integrate neither view)

심리학과 신학의 관계에서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 모두를 받아들여 신학과 심리학 모두를 부인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학문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일반상담은 일반상담 대로 기독교상담은 기독교상담의 모습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본질상 심리학과 신학은 다르고 똑같이 유용하지만 두 가지가 서로 상관이 없으므로 억지로 하나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 이 견해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우연이라도 신학과 심리학이 서로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1) 영의 문제는 신학자에게, 혼의 문제는 정신과 의사에게 가나?

이 견해는 우울증이 “영적인 문제인가? 혹은 심리학적 문제인가?”를 구별해 보려고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연구로부터 시작된다. 내담자가 불안 증세를 가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영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불안” 이 “영의 문제인가? 혼의 문제인가? 혹은 정신의 문제인가?” 를 논하는 것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으로 연결된 하나

의 “인격체”의 의미를 대치시킨다.¹⁸⁾

4) 믿음보다 사실 (facts not faith view)

(1) 21세기에도 18세기 계몽주의와 Freud는 대중적인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열린 자세로 활용되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게 한다.¹⁹⁾ “Facts not Faith view” 는 그러한 이슈를 넘어서 신학 보다는 심리학을 우위에 놓고 권위적인 주관적인 성서해석 혹은 지나친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며 현대적 의미와 과학주의 적인 성서해석의 방법을 시도한다.

21세기의 상대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이다. ‘포스트모던’은 기독교 대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기독교세계에서 본다면 이성중심의 세계관 극복과 이성의 한계성을 지적하여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기독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기독교와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²⁰⁾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포스트모던은 과거 근대주의에서 성행하였던 “인간 자율성”의 사고를 붕괴시키고 인간실존의 한계와 제한성을 노출시킨다는 공헌이 있다. 포스트 모던은 문화적 다양성, 탈 건전화와 진리의 시간적, 공간적, 인종적, 성적 격차 안에서 21세기를 보는 시점으로부터 언어질서에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태는 포스트 모던의 대안적인 주체는 현실에 존재하는 모순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주체는 구체적인 “인간주체”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메타주체”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facts not faith view (혼합)” 견해는 18세기의 합리주의를 주장하며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가 중요하다는 관점은 결론적으로 근대의 산물인 과학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과학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극단적 경험주의는 모든 것이 이미 생각한 것을 수집한 것 보다는 사실들 (즉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적 결론이 나오는 것만) 이 “과학적” 으로서 믿을 만한 사실이라고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경험세계를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있어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서 그때 까지 믿었던 사실은 물거품이 되므로 누구에 의해 해석되며 적용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며 분석가의 교육이나 학문적 배경과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이 객관적 세계에서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과학적” 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믿음의 틀 안에서 과학의 속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객관적 과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신학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학에 기초하여 비기독교 심리학자들이라도 우연히 발견해 놓은 일반은총적인 유용한 것을 성경적 기초 위에 올려놓는다면 의미가 있으나 성서적 진리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의 분별에 대해 언급하는 개혁주의적 학자들의 입장과 함께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C. S. Lewis는 기독교 세계가 말하는 진리적 가치기준(Mere Christianity, 1장)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리고 작은 책 안의 계시방법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결정 될 수도 있기²¹⁾ 때문에 두 계시의 목적의 차이 (딤후3:16 vs 시 19:1)를 이해한다면 상담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5) 접목 (Scripture foundation & secular nuggets)

상담학 교수인 Edgington은 Lawrence Crabb의 상담학을 단기상담으로 구조화 하여 두 상담의 윤곽과 상관관계를 쉽게 설명해 준다. 그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의 인종갈등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에 대해 언급 하고 있다. 인종차별의 문제에 직면했던 미국의 한 고등학교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문제를 없애는 것이 학교의 큰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학교의 해결책으로 강화 시킨 것은 채플 시간과 성서교육 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행동은 성서와 기독교 채플교육과 관계없이 폭력으로 이어져 학교를 단아야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사회로부터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을 권유받았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한 한 가지 방법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기독교 학교는 클래스 안에서 백인과 흑인 학생들에게 한 가지 목표를 주고 두 인종의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주었다.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어려운 공동 작업

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은 두 인종간의 협력과 응집력을 갖게 해주었고 인종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성장 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기독교 학교는 심리학자 “Golden Allport”의 이론을 알고 위기개입 상황을 대처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한 방법은 비기독교 심리학자 Allport가 창시한 방법과 일치하고 있다. Allport 이론의 핵심은 “다른 성격의 인간이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할 수 있을 때만 편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상담이론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상담이 일반상담의 일반은총적인 방법이 우연히 심리학자가 발견하였던 방법과 같다면 심리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해 놓은 유용한 것을 성경의 기초 위에서 올려놓을 수 있다고 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히브리서 (5:14)와 빌립보서 (1:10)의 주제인 분별력을 언급한다. 성서적 분별에 대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분별하는 것 보다는 기독교상담과 일반상식이나 일반심리이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²²⁾로서 상담사의 의무와 책임이 되어진다.

5. 작은 책의 일반상담 구성

Roger Hudding 은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선부르게 “비성경적”이라고 간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²³⁾는 언급을 하고 있다. 뜻밖의 일반 지혜자의 충고와 일반 상담의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은 작은 책인 성서에서 발견되어 진다.

고린도 전서와 디도서는 하나님에게서, 선지자 혹은 사도의 이야기가 아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유명한 시인의 말을 고린도 전서 (15:33)에 인용하고 있다. 바울은 그 시대 문화적으로 유명한 그리이스의 “에피멘더스”라는 일반 시인의 이야기를 성서에 인용하고 있다. 사도바울에 의해 사용된 이야기 내용은 동서고금 진리로서 교육현장에서 누구나에게 인용되어 질수 있는 대중적인 이야기 표현 들이다. “모든 인간의 삶에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씌여진 일반상담 문구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비슷하고 가까운 글들로

표현되어 복음 전파의 대중성을 위해 성서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도서 (1:12-13)도 역시 그 당시 유명했던 일반 지혜자들의 글을 성서에서 복음을 위한 주제로 전개하고 있다.

특별계시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 수 있는 반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초월성이 나타난 유한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딤후3:16 vs 시19:1) 도움을 주고 있다. Yancey의 “Disappointment with God”에서 인용된 루이스의 글은 ‘심리학’을 상징하는 ‘빛줄기’에 비추어 지는 ‘미립자 (먼지)’와 ‘신학’을 상징하는 ‘빛줄기 근원’의 비유로서 기독교상담과 일반상담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빛줄기가 어디 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의 근원을 알려고 하는 과정 중, 빛줄기에 비추어 지는 미립자 (심리학)을 발견하여 알 수 있는데²⁴⁾ 미립자를 연구할 가치가 없다든가 빛의 근원 (신학)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 혹은 연구할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근본주의적 자기세계 (autistic fundamentalism)에 갇혀 버리게 된다.

출애굽기(18:13-27)의 모세 이야기 에서는 “충고 (advise)를 잘 들으라”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 문구는 일반 지혜자 (장인)의 상담으로 이어지며 모세는 선지자가 아닌 장인의 일반적인 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고 있다. 그 밖에도 심리학자가 혹은 다른 과학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은혜를 주제로 하는 내용 (잠13장; 마5:45)은 작은 책에서 언급되었다.

6. 작은책 해석과 상담

문화적인 “컨텍스트 (context)” 안에서 사용된 “텍스트(text)”의 의미로서 해석학의 태동은 “기독교세계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작은 책인 “성경 (The Bible)” 이란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상징되며 다양한 것을 표현하는 중립적인 용어로

쓰인다. 반면 “성서적” (Biblical) 이라는 용어는 문자적이며 주관적인 용어로서 사용자의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기도 한다. 해석적인 존재인 인간은 내적인 현상 (internal state) 에 의해서 보다 의도적인 현상 (intentional state) 을 중심으로 “자기 해석의 틀” 의 의미를 가진다. 상담에서 해석은 내담자가 공감하며 동일시하는 성서의 인물과 사건을 주제로 다루게 된다. 내담자의 내면세계 속에서 변화는 설교를 듣거나 성서를 읽고 “미래에서 날아온 편지” 를 쓸 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은유적인 성서의 사건들의 해석을 통하여 문제를 담아내게 될 때도 일어나게 된다. 성서는 기도, 소시오 드라마 (socio drama), Bible이 적용되는 모든 의식 안에서 사용될 수도 있는 반면, 문학치료, 혹은 시나 문학치료, 독서치료 적인 양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기독교 상담가는 내담자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성서의 지나친 문자 해석에 의해서 상담자의 주관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지, 성경에 대한 상담자의 해석과 견해가 전달되는지, 또한 성경 이야기 사용이 내담자의 맥락에 적절한지 가능성과 그들이 선호하는 성경의 내용 등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는 시각을 견지했던 종교개혁자 칼빈 (Calvin)의 성경해석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석에서의 신중해야 하며 불신자의 경우에는 내담자 자신의 삶의 여정에 담긴 신앙요소들과 신학요소들을 의식화 시켜 발견하게 하며 성서에 담겨있는 내러티브와 연결시킬 때 의미가 있다.²⁵⁾

이야기 해석은 ‘텍스트의 이해’ 에 대한 연구와 컨텍스트(context) 안에서 정의 내리며 해석하는 사람과 텍스트, 두 관계 사이의 탐구를 의미한다.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균형과 적절성은 상호보완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본문의 텍스트로 인하여 맥락(context)이 무시 되지 않아야 한다. 맥락이 무시되는 경우 상담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이어지며 상담자의 의도로 시작되는 해석은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한다. 성경구절에 대한 이원론적인 해석은 내담자의 내면세계를 의식화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성경구절에 대한 내담자의 신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담자 표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성경구절이 긍정적이면 왜 긍정적인가를 물어야 하며 성경구절에 대한 내담자의 신화가 부정적이면 그 이면에 있는 부정적 해석의 역사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²⁶⁾

일반적으로 문학치료에서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치료하며 서사로 서사를 치료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 보다 관계적 형성과 위기 회복 과정에 대한 의미를 함축한다. 직접적인 메시지, 은유를 사용하여 간접적 혹은 우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학 치료적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존재하는 자기서사를 발견하고 다음단계로 작품서사를 통해서 자기서사를 수정하여 보완하고 마지막 단계로서는 자신의 건강한 서사를 만들어간다. 성서의 사건과 해석은 다른 다양한 문화, 시대, 시간과 장소 등을 초월한 교차된 공간에서 심리적 갈등을 줄여 나가며 기독교 세계로 나가게 된다.

문제를 표현 할 수 없는 내담자 들은 가면을 쓰고 책의 사건과 사실을 통해 공감되는 성서적 의미를 이해한 후 자신에 대해 발견하는 과정을 갖는다. 은유 이야기의 역할은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는 사건과 인물, 그리고 성서 이야기 속의 문제를 동일시한 내담자를 돕기도 하며 그들 스스로 갖는 상황적 위기개입을 그때야 지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은유적인 이야기의 한 예로 양유성은 요한복음(4:3-30)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물은 “은유적”으로 활용 되었으며 물의 의미는 은유적 함의를 담은 해석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채울 수 있고 물에 대한 은유적인 메시지(4:7 이하)를 통하여 여인의 삶을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은유의 이야기가 여자의 자존감을 구축하는데 작용하고 감정과 사고의 밀접한 유대감을 조성하게 하므로 여인이 목말라 사랑을 받고자 했으나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보여 준다.²⁷⁾

작은 책 이야기는 무엇을 채택하여 보도록 (looking at) 하는 정체성 사건들을 있다. 이야기 치료과정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보여 주는 것 (seeing) 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보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성서 해석은 해석자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부터 보는 관점과 다른 해석자들의 주관적인 해

석들이 함께 객관적인 관점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는 균형 있는 해석과 접목²⁸⁾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에서는 성서의 한 장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주제 해석을 돕는 것이 요구되어지며 문자적 의미와 상담가 주관적 해석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도록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담가가 가져야 할 자세이다.

7. 이야기 치료 실제

작은 책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서사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 치료는 일반은총 영력을 연구함으로써 성서의 지식 또는 작은 책의 신학과 연결하는 폴 킬리히의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기독교 세계에서의 이야기 치료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사회지향적 능력 과 존재론적 능력 안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의지의 능력 (volitional capacity) 으로부터 가져온 “내담자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만이 자신의 선택을 영원하게 한다”는 대전제 안에서 통용되며 M. White의 ‘주도적 행위 (initiative)’ 이론은 이 주제와 대치되지 않는다. 작은 책은 “하나님을 주체로 무엇인가를 언급하며 보여주며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을 주관하는 것 (God as subject, 마 11:27; 눅 10:22)을 이야기 하는 동시에, 인간은 누구에 의한 희생자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삶을 선택하며 주관 (Man as subject, 약 3:3-4)한다. 이러한 대전제 안에서 이야기는 행위의 조망에서 정체성 조망으로 올라가는 상담과정이 단계적으로 설정된다. 아래의 사례들은 이야기 해체와 이야기 치료의 mapping²⁹⁾ 과정을 간략하게 축약하였다.

사례축약 (I) : deconstruction of story

어린 청소년 내담자는 자신의 성격이 우유부단하며 겁 많고 의존적인 형의 성격을 닮은 것에 대해 어머니를 대신하여 정형화 시킨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 보다 그를 키어온 어머니 양육 메시지를 내재화하여 그러한 자신의 성격에 대해 정당화 시키고 있다.

T: 훈이의 공부와 숙제를 도와주는 남자 선생님이 훈이 가 독립적이 되어가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잘 할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네 자신이 보는 네 성격에 대해 이야기 해줄 수 있겠니?

IP: 나는 형과 같아서 겁 많고 게으르고 남을 의존하여 힘들게 하는 형의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T: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혹은 네가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순간에도 너는 형의 나태한 성격을 닮아서 네 자신이 숙제를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IP: 응 모르겠어요. 나는 어머니가 매일 형의 성격을 닮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T: 안 좋은 형의 성격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이름을 붙인다면 그 이름이 무엇일까? “ 그런데 그것이 너를 아주 힘들게 하는구나. 오늘 선생님은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용기 없고 나태하고 무력한 성격”에 대해서 네가 그러한 생각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IP: 나는 형이 아니구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싫어요. 나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똥똥해서 뭐든지 느리거든요.

(아동이 두서없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대신하여 학교의 적응 동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혹은 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자신에게 쓰는 편지로 글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T: 너는 더 이상 게으르고 두려움이 많으며 나태한 학생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고 그런 아이로 머무르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엄마와 주위사람들이 너의 행동을 오해하고 있었다고 보니?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엄마에게 설명하면 어떨까?

IP: 네. 요셉도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T: 네가 쓴 글들을 보면 빠르게 행동하고 네 자신이 스스로 숙제를 했다고 적혀져 있는데 ...

그렇다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용기를 주었을까?

IP: 마음먹으면요.... 그렇게 행동 했어요. 기도도하고....

T: 그럼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빠르고 네가 스스로 하도록 좋은 성격과 습관을 가지는 것을 위해 첫 단계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리고 요셉이 너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 할까?
—생략—

사례축약 (2): statement position map (II)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작은 다윗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다윗의 강점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맞추어 내담자 현재의 문제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상담이 진행 되고 있다.

T: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서에서 본 그 (중요한) 인물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IP: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가지는 대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ction)

T: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P: 그는 두렵지 않고 무엇인가를 견디어낼 자신이 생겼어요. 옛날에도 다윗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meaning)

T: 너는 두려움 없는 다윗의 용감한 모습을 좋아하는구나. (value 찾아내기)
너를 놀리는 친구들을 두려워 하지 않고 네 할 일을 용기 있게 해냈다고 형이 이야기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니? (예외정의 협의)

IP: 나도 용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든 아니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셨어요.

T: 그러한 놀리는 친구들과 관계없이 다윗처럼 용기 있는 행동이 계속된다

면 그 행동은 너의 삶에 계획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 지 이야기 해 주겠니? (예외영향 찾기 I)

IP: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지요.

T: 그럼 네가 그들의 왕따에도 견딜 만한 용기 있는 행동이 계속 된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예외영향 찾기 2)

IP: 내가 피하지 않으면 겁쟁이는 되지 않겠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T: 그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달리 보게 되면 그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야기 해 줄래 ?

IP: 학교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학교일을 잘 해내면 애들이 놀리는 것을 포기하겠지요. 애들이 나를 겁쟁이로 보지 않는다면 나는 공부를 하고 숙제도 하고 놀리는 것에 대해 신경도 안 쓸 거예요.

T: 그래? 그들이 나쁜 일을 포기하면 그때 너는 어떻게 행동 하고 있을까?

IP: 무엇이든 무서워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아요. 그 애들이 나에게 사과하면 나도 용기가 생겨 화해할 거예요.

T: 화해를 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IP: 웃고 있어요.

T: 너의 웃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IP: 글썽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웃겠죠. 그럼 서로 화나지 않고 다 끝나는 거죠.

T: 대단한 일이네.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는 신앙적이며 긍정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 이라고 생각하니? (예외들의 영향평가)

IP: 네

T: 그러면 네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너에게 왜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영향평가에 대한 정당화)

IP: 응 (생각 중) 그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은 것이예요. 하나님 이 저기 있어서 엄마도, 누구라도 용감해 질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용기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T: 응. 네 대답이 선생님에게도 용기를 주는 것 같구나. 그러면 너의 용감한 모습에 대해 어떤 것인지 같이 이름을 붙여볼까? -생략-

III. 닫는 글

상담의 목표는 신학이나 기독교 철학을 표현하는 서사, 혹은 교육적 훈련, 의사소통 기술의 노하우를 위한 대화 기술 보다는 기독교세계의 정체성이다. 이야기 치료는 인간 삶의 본질을 이야기라고 보며 정체성은 이야기치료의 이슈가 된다. 성서는 움직여가는 “이동” (moving)의 이야기이며 인간의 정체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따라 생성되며 변화되어가는 실체이다. 작은 책 이야기는 객체이자 주체인 인물들과 성서적 사건, 그리고 은유 이야기 등의 반영을 통해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 참고문헌 】

- 고미영.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서울: 청목출판사, 2004.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4.
김인수. 『가족치료-해결중심접근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2.
변학수. 『통합적 문학치료』. 서울: 학지사, 2006.
양유성. 『이야기 치료』. 서울: 학지사, 2005.
이관직. 『개혁주의 목회상담학』. 서울: 대서, 2007.
———.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이영식.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학지사, 2006.
이현경. 『이야기 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2007.
오윤선.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서울: 예영 B&P, 2007.
Anderson, Tom. *Reflecting Team: The Reflecting Team: The Dialogues and Dialogue about the Dialogues*. New York: Norton, 1991.
Carter, John D. & Bruce S. Narramor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전유섭 역.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갈등』. 서울: 하늘사다리, 1997.

- Crabb, Lawrence J.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전요섭 역. 『성경적 상담학개론』. 서울 : 아가페문화사, 2003.
- Dayringer, Richard.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ough Relationship*. 문희경 역. 『관계중심 목회상담』. 서울: 솔로몬, 2004.
- De Shazer, S. *Putting Difference to Work*. New York: Norton, 1991.
- Edgington, Tom. *Healing Helps from the Bible for Hurting People Seeking Help from Scripture*. Winona Lake, IN.: Edgington, 2004.
- Freedman, Jill. & Gen. Comb. *Narrative Therapy: Narrative Therapy with Couple and Whole lot more*. 허남순 역. 『이야기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6.
- Morgan, Allice. *What is Narrative therapy?: An Easy-to-Read Introduction*. Adelaide: Dulwich Centre, 2000.
- Scott D. Miller, *Working with Problem Drinker*, 가족치료모임연구 역. 『단기 해결중심 가족치료』. 서울: 하나의학사, 1992.
- White, Michael. *Reflections on Narrative Practice: Essays Interviews*. Adelaide: Dulwich Centre, 2000.
- . *Narrative Practice and Exotic Lives: Resurrecting Diversity in Every Life*. Adelaide: Dulwich Centre, 2004.
- . *Maps of Narrative Practice*. New York: Norton, 2007.

[후주]

- 1) Michael White, *Re-Authoring Lives: Interviews and Essays* (Adelaide: Dulwich Centre, 1998), 13.
- 2) 이현경, 『아동, 부부 중독가족을 위한 이야기 치료』 (서울: 가족치료와 상담연구소, 2007),
이현경, 『기독교세계와 이야기 치료, 2007』(서울: 가나다, 2007),
- 3) 이영식, “서사학의 독서치료적 활용”, 독서치료학회, 『독서치료와 이야기 치료』 (2006, 5): 1-11.
- 4) 이영식, “서사학의 독서치료적 활용”, 1-11.
- 5) White, *Re-Authoring Lives: Interviews and Essays*, 14.
- 6) Charles A. Kollar, *Solution-Focused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 Zondervan, 1999), 63-64.
- 7) 양유성, “독서치료와 성경의 사용”, 한국목회상담협회, 『신앙자원과 목회상담』(2007, 5): 171-83.
- 8) Edward P. Wimberly, *Using Scripture in Pastoral Counseling*, 김진영 역, 『목회상담

- 과 성경의 사용』(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15-22.
- 9) 이관직, “상담과정에서 성경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한국목회상담협회, 「신앙자원과 목회상담」(2007, 5): 184-200.
 - 10) 옥성호,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150.
 - 11) 이관직, “상담과정에서 성경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184-200.
 - 12) Wimberly, *Using Scripture in Pastoral Counseling*, 34.
 - 13) Tom Edgington, “신학과 일반상담의 통합”, 길르앗연구소, 「기독교상담」(2004, 1): 15-22.
 - 14) 이관직, “상담과정에서 성경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184-200.
 - 15) Edgington, “신학과 일반상담의 통합”, 15-22.
 - 16) Edgington, “신학과 일반상담의 통합”, 15-22.
 - 17) 박종수, “성서적 상담과 분석심리학”, 한국목회상담협회, 「신앙자원과 목회상담」(2007, 5): 159-69.
 - 18) Edgington, “신학과 일반상담의 통합”, 15-22.
 - 19) 박종수, “성서적 상담과 분석심리학”, 159-69.
 - 20) 이상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의 비평가 대응”, 백석대학교 기독교선교학회, 「선교와 개혁」제1권(2006, 1): 303-24.
 - 21) Edgington, “신학과 일반상담의 통합”, 15-22.
 - 22) Edgington, “신학과 일반상담의 통합”, 15-22.
 - 23) Roger Hurding, *The Bible and Counseling*, 문희경 역, 『성경과 상담』(서울: UCN, 2003), 18.
 - 24) Philip Yancey, *Disappointment with God*, (Grand Rapid: Zondervan, 1997), 261.
 - 25) 이관직, “상담과정에서 성경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184-200.
 - 26) 박종수, “성서적 상담과 분석심리학”, 159-69.
 - 27) 양유성, “독서치료와 성경의 사용”, 171-83.
 - 28) 이관직, “상담과정에서 성경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184-200.
 - 29) 지도는 내담자 혹은 가족의 삶에서 문제의 탐색과 문제 영향력에 대한 것과 함께 행위의 관점과 정체성 관점을 오가며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가치관 등 독특한 결과로 간주되는 것을 추적하여 기독교 정체성으로 가는 상담과정의 이해를 돕는다. 입장진술지도, 재제작지도, 회원제구성지도, 외현화 대화지도, 질문거리지도, 외부증인지도, 실패대화지도 등이 포함.

【 Abstract 】

Narrative Therapy in the Bible

Lee Hyun Kyung
(Baekseok University)

This paper proposed the premise and practicum of narrative therapy in the Bible with Biblical world view. The perspective of the narrative therapy practiced in the Bible cannot be isolated from the Christian culture and language. A discourse is made up stories, action and text. It is to propose that we live by the stories that we have about our lives, that these stories actually shape our lives, constitute our lives, and that they “embrace” our lives. This is to propose the human beings are interpreting beings-that we are active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experiences as they live their lives. It's to propose that It's not possible for human being to interpret human's experience without access to some frame of intelligibility, one that provides a context for experience, one that makes the attribution of meaning possible. And, stories constitute this frame of intelligibility. The Bible's plot includes “moving story”. Bible story is developed events, sequence, time, and a plot. It's to propose that depends on Text plot, christian's identity can change. The story plot has the connective role among life events. If clients illuminate their problem differently, they can see the possibility to held alternative story plot, and their identities are creating in the narrative therapy.

Key words: narrative metaphor, the Bible, moving story, alternative plots, identity